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죄를 사하는 권능 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

Tag: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9:1-8)

사람들이 침상에(들것)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으므로 하는 수 없이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 놓았다고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말한다. 친구들은 최소한 두명에서 네명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절친들임을 알 수 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주로 노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나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는 병자는 상당히 젊은 청년으로 추측된다.

-왜냐면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이 ‘소자’라는 단어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이봐 젊은이 안심하게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므로, 예수님보다는 나이 어린 청년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뜸,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였다.

죄사함;죄를 용서함, 죄를 떠나 보냄. 풀어줌, 석방함.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줌. ἀφίημι ἀφίενται(아피엔타이) have been forgiven (3인칭 복수; 너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음)

-죄로 인해서 뭔가 막히고, 얽히고, 고장나고, 결국에는 병이 되어버린 것을 풀어주고, 고쳐주고,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뜻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 청년의 마비 증상의 원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죄도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질병의 많은 원인들 중에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 하셨으니, 여러 청년들의 믿음을 보고 사죄를 선포 하셨다.

1.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짐작하실 수 있으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청년들이 이토록 힘겨운 일을 해 내는 것과,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들의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이 청년들은 믿음이 있어 보인다.

-다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상대방의 믿음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현재 치유에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믿음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선행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오늘의 등장인물인 중풍병자도 그동안 한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증언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즉,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이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나의 순전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이다. 순전하지 못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서기관들이 그러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란 의사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의사는 개인적으로 몰라도 의술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다.

-왜 예수님은 믿음을 확인하시는가? 오직 믿음만이 동기유발을 하기 때문이다. 동기유발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동기 유발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생각을 바꾸고, 깨달음을 주고, 습관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용기를 준다.

-이들은 믿었으므로 침상에 누워서라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치유도 믿음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2. 죄사함의 선포와 치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죄사함의 선포는 치유의 베이스다.

-귀신을 쫓아 낸다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 하시든지, 단순히 질병이 나왔다고 선포하시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록 명령하시든지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선포는 치유의 베이스라는 의미이다.

-기독교 자체가 회개와 물세례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다른 기적과는 달리 병고침은 죄를 사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다.

-그런데 죄사함의 선포는 회개와 물세례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죄사함의 선포 만큼은 오직 예수님의 선포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선포를 알 수 있으며,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가? 가장 확실한 것은 죄로부터의 떠남에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행동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다.

3.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나

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나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막6:1-6)

-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다.
-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은 신성한 것이다.
-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들이, 마가복음6장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이며, 신성무시적인 태도를 보였다.
- 예수님은 신성 그 자체이신 것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으며,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선포까지 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념(서기관)과 신성에 대한 오해(막6;나사렛 사람) 때문이다.
- 이념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 신성에 대한 오해는 신성을 막연히 인성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
-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통일 되신 분.
-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인성안에 신성이 충만한 자이다.
- 신성에 대한 무지가 고집과 교만으로 뭉쳐져 있으면 나사렛 사람 현상이 나타난다.
- 멋있는 예배당을 보면 신성을 느끼는 자;우상숭배적 수준. (50%)
- 근엄한 성직자를 보면 신성을 느끼는 분;율법주의자 수준.
-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수준) 대략 80% 정도? (+30%)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신성을 느끼는 분;복음주의자 수준.

-어린 아이를 보면서 신성을 발견하는 자;겸손한 자, 사랑이 많은 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

-이런 어린 아이에게 성령을 전달해 주는 분;성령으로 충만한 자.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자!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